불황에 저당 잡히는 삶…2030청년들 '전당포행'

광주 7개 전당포 취재해보니

생활비에 도박 채무 급전 조달
과거 귀금속·명품 브랜드 대신
휴대전화·노트북 등 IT기기 맡겨
절차 간단하고 신용기록 안 남아
젊은 세대 찾는 발길 부쩍 늘어
상당수가 맡긴 물건 안 찾아가

고질적인 취업난에 경기 불황까지 겹치면서 전당포(典當鋪)를 찾는 '2030'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

직업을 갖지 못한 MZ세대들의 경우 신용이 낮아 은행을 이용하기 힘들다보니 단기 급전 조달 창구로 전당포를 찾고 있다.

금융업의 발달로 사양길에 접어들었던 전당포들이 급전이 필요한 MZ세대들 때문에 때아닌 호황(?)을 누리는 웃픈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찾은 광주지역 7개 전당포 주인들은 코로나19 이후 전당포를 찾는 젊은층의 발길이 부쩍 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전당포는 물건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리는 사금융업의 일종이다. 최근에는 MZ세대 고객들이 늘면서 명품이나 휴대전화·태플릿·노트북 등 고가의 IT 기기가 주 거래 품목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상호에 'IT'를 넣어 MZ세대를 타깃으로 하는 전당포까지 등장했다.

젊은층이 전당포를 찾는 이유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복잡한 은행 절차 없이 물건만 맡기면 돈을 빌릴 수 있는데다 신용 기록도 남지 않기 때문이다. 대다수가 1~3개월 급전을 이용하는 터라 월 1.66%의 이자율도 이들에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광주시 동구의 한 전당포 업주 A씨는 "지난해부터 젊은층의 방문이 부쩍 늘었다"면서 "최근 손님의 95%가 2030이며 10대들도 찾아왔다가 나이 제한때문에 돌아가곤 한다"고 말했다.

광산구의 한 전당포 관계자 B씨도 "대학 등록금 때문에 본인 명품 백과 노트북을 맡긴 20대 여성도 있었고 도박을 위해 여러차례 방문해 물건을 맡겼다가 결국 회수하지 못하고 간 젊은 남성도 있었다"며 "모두 '급전'이 필요해 전당포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구 월산동의 '착한 전당포'의 경우에도 하루 방문객의 절반정도가 젊은층이다. 젊은층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맡기는 물건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귀금속과 명품 브랜드 제품이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에는 IT기기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착한 전당포 관계자는 "중·노년층은 금이나 명품 시계를 맡기는 반면 2030은 비교적 저렴한 IT 기기를 맡기고 회수율도 낮다"고 설명했다.

전당포들은 보통 감정 후 물건 값의 60~80% 금액을 빌려주고 있다. 최근 고가의 최신 휴대전화를 맡기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최신 기종이 자주 변화되고 감가상각이 커지는 편이라 감정가격의 60%를 빌려주는 경우가 많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그래도 워낙 고가인 경우가 많아 100만원까지도 빌려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사람이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맡기는 경우까지 있다.

동구 전당포 업주 C씨는 "젊은이들이 급전이 필요한 경우는 등록금부터 생활비까지 다양하지만, 도박중독이 많다"고 귀띔했다.

C씨는 "휴대전화를 담보잡을 경우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는데 대부분 해외 도박 사이트 접속 기록이나 도박 어플 등이 깔려있다"면서 "지난 2월 20대 남성이 밤늦게 찾아와 휴대전화를 맡기고 70만원을 빌려간 이후 가방과 시계, 자가용까지 맡기며 총 1000만원 가량을 빌려갔다. 알고보니 도박중독으로 인해 빚이 쌓여 채무관계가 복잡했던 청년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젊은층들이 맡긴 물건은 대부분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신분증을 도용해도 알 수 없고 복잡한 절차가 없다는 이유로 전당포를 악용하는 사례도 더러 있었다.

남구의 한 전당포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맡긴 뒤 분실신고를 해 지능적으로 물건을 되돌려 받으려는 학생도 있었다"면서 "고등학생이 신분증을 도용해 휴대전화 3대를 맡기고 돈을 빌려가려 했던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정서 조선이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30세대가 다양한 생활고를 이유로 벼랑 끝에 몰려 전당포를 찾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불황임을 방증하는 지표"라며 "2030들이 안정된 직장을 갖고 생활고 등에 시달리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과 정부 차원의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학동 참사' 9일 2주기 추모식
유족측 추모공간 입장 밝힐 듯

철거 중이던 건축물이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한 '광주 학동 붕괴 참사' 2년을 맞아 '학동 참사 2주기 추모식'이 오는 9일 사고현장에서 열린다.

4일 광주시 동구 등에 따르면 붕괴참사로 희생된 분들을 기억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학동 붕괴참사 2주기 추모식'이 9일 오후 4시 20분부터 사고현장 인근에서 개최된다.

특히 이날 유가족대표 이진의씨는 추모사에서 추모 공간 조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추모 공간 조성 장소를 두고 유족과 조합측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아파트 부지 안에 추모 공간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조합측이 반대의 뜻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4월 유족측과 조합측은 사고현장인 버스정류장 주변에 추모와 관련된 조그마한 조형물 등을 놓는 안에 대해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략적인 합의점은 찾았다는 것이 양측의 입장이다.

추모 공간 조성 장소를 재개발구역 바깥의 멀지 않은 곳에 두기로 한 것에 대해 유족측은 대략적으로 합의는 했지만 아쉽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유연재 기자 yjyou@

'소음 당나귀' 주인-주민 합의했다는데…

"하반기 옮기고 안되면 성대 제거" 약속에 동물 학대 논란

당나귀 울음 소리로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는 보도〈광주일보 5월 26일자 7면〉와 관련해 일부 피해 아파트 주민과 당나귀 소유자가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합의내용에 당나귀를 옮기지 못할 경우 당나귀의 성대를 제거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동물 학대 논란이 예상된다.

광주시 북구 중흥동의 한 아파트단지 각 동의 엘리베이터에 최근 '당나귀 울음소리와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공고문이 게시됐다.

공고문에는 '지금 당장 당나귀에 입마개를 씌워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올 하반기 당나귀를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당나귀 주인의 약속도 적혀있다.

당나귀 우리 근처에 예정돼있는 도로공사가 시작되면 당나귀를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공고문에 '그때에도 당나귀를 옮기지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성대수술을 해 더 이상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약속했다'는 내용도 있어 동물학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동물단체 관계자들은 당나귀의 거주 여건을 바꾸지 않고 당나귀의 신체를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동물학대라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단체인 '가치보듬' 조경 대표는 "성대제거 수술 등은 수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시끄럽다는 이유로 성대를 제거하는 것은 동물복지 기준인 동물 5대 자유 중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동물학대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어 "동물이 단순히 소리를 낸다고 하루종일 입마개를 착용시키는 것 또한 심각한 동물학대다"며 "당나귀 우리에 소음 방지 장치를 설치하거나, 우리를 민가와 떨어진 곳으로 옮기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특전사동지회와 공법단체 5·18 부상자회·공로자회 회원들이 지난 3일 물리적 충돌을 우려한 경찰이 만든 저지선 앞에서 길을 열어달라고 항의하고 있다.

민주묘지 참배 반대에…특전사동지회 개별참배

임성록 특전사동지회 고문은 4일 오전 고(故) 김경철 열사 어머니 임근단 여사와 함께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개별참배를 진행했다.

하루전인 3일 특전사동지회가 일부 5·18 공법단체와 국립5·18민주묘지 단체 참배에 나섰다가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대책위)의 강한 저지에 막혀 무산된데 따른 것이다.

이날 임 고문은 "전날 시민단체의 반대에 돌아갈 수밖에 없어 아쉬웠다"면서 "임 여사는 오월어머니를, 저는 특전사동지회를 대표해 참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대책위는 5·18을 왜곡한 특전사동지회의 진정한 사죄 없이는 참배를 반대하겠다며 수십명의 회원들이 대형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민주의문' 앞에서 이들을 가로막았다.

부상자회·공로자회 회원들이 "왜 막느냐"며 강행돌파 하려다 마찰이 빚어지자 결국 경찰이 중간에 저지선을 만들었고 30여분 뒤 특전사동지회와 공법단체측이 발길을 되돌리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대책위 관계자는 "5·18 두 공법단체와 특전사동지회는 사죄도, 실체적 증언도 없이 정치쇼를 하려 한다"며 "오월을 능욕한 이들의 참배를 반대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단체참배 무산에 대해 황일봉 5·18부상자회장은 "대책위는 시민단체의 탈을 쓴 정치집단이다"면서 "수차례 사죄하러 오는 사람에게 사죄 먼저 하라고 국립518민주묘지를 막아서는 행위는 5·18 대동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다"고 말했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 · 고객 · 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콕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콕!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 에서 콕! 바로 바로 확인까지 콕!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1%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순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1일이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9%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1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화정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림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천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동운지점 062)528-2640~2
버들지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